

# 지역특화작목법으로 국가균형발전 이끈다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특화작목법) 시행으로, 지역 농업 연구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10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1991년부터 지역전략작목을 육성하고, 그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지역농업연구기관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2014, 2015년) 및 우수사업(2018년)으로 선정됐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중앙정부인 농촌진흥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한 국산품종 딸기 육종과 수출 산업화를 들 수 있다.

충남 딸기연구소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실향'을 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대학이 협력해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재배환경과 재배법 표준화 및 저장·유통기술을 개선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했다. 그 결과 2005년 9.2%에 불과했던 국산 딸기 품종의 점유율은 2018년 94.9%로 높아졌으며, 수출액도 2005년 4백4십만 달러에서 2018년 4천8백만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그 외 다양한 성공 사례들은 국가와 지방간 R&D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농업의 R&D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즉, 전국 지역특화작목연구소는 199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4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42개 연구소 중 33개 연구소가 2000년 이전에 설치되어 시설과 장비가 노후되어 있으며, 연간 4억원 이하의 예산과 평균 8명의 인적자원 등으로 운영되고 열악한 현실에 직면해있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예산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 연구예산 중 농업분야의 비중은 2% 이하로 매우 낮고, 대부분 농촌진흥청의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발전전략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역주도 R&D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농업분야에서도 지역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추진함으로써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농산업 부가가치 제고할 지역농업 발전 강화전략을 수립하여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 '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하게 되었다.

지역특화작목법 제정으로 지역특화작목연구소의 노후화된 연구기반을 개선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 산학연협력사업의 운영, 기술서비스(Outreach), 인력양성, 산기작품 발굴 등을 포함하는 지역단위 특화작목 발전계획을 수립하

고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 실행하게 된다. 특화작목연구소가 실용화·축진을 위한 기술이전과 사업화는 물론, 유통과 수출까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촌진흥청은 국가기관으로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특화작목 연구개발 계획과 추진방안에 대한 심의, 조정 및 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지자체의 부족한 농업 R&D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작목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를 통하여 지역별 실태조사와 농업 R&D 역량진단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은 "이번 '지역특화작목법' 시행에 따른 지방분권과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균형발전 기여하는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통해 지역 농업부흥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정부혁신에 기여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홍남기 "2분기부터 성장률 반등할 것... 화폐개혁 검토 안 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분기부터 성장률이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워진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며 "글로벌 경제여건이 저하가 생각했던 것보다 악화했고 특히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이 부진한 것도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과 관련해 "고용률이나 취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청년고용률은 2007년 이후 가장 높다"고 말했다. 30~40대 일자리,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는 "제조업 분야 일자리나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40대 좋은 일자리가 마이너스가 돼서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설비투자, 건설 투자 등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투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전략도 발표하는 등 정부로서 총력을 기울여서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과 관련해 "검토할 시기는 아니

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석달 전 정부가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로 금이나 달러 사재기에 의한 부작용이 컸다"고 우려했다.

R&D(연구개발) 체계 혁신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 R&D 혁신방향을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수립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다"며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면서 창의·도전적인 과제 선도에 역점을 뒀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가 이뤄지도록 연구자의성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성운모 장관, 日에 불화수소 유출 증거 제시 요구

성운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우리나라가 불화수소를 북한에 유출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일본 측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성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성 장관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국제연합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일본이 이번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라고 주장하는 불화수소 반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성 장관은 "전라물자를 수출하는 기업들을 점검해보니 정확히 수출 통계

에 따르면 있었다"며 "일본 측에 불화수소 관련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본의 조치 이후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의 경우 항소와 상소까지 더하면 2~3년이 걸린다"며 "이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성 장관은 "내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관부처와 기업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준비해왔다"며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응에 나선 것

이라고 반박했다. 성 장관은 산자위에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의도 요청했다.

산업부는 수출 활력 제고와 포항 지진 복구 등 28개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목적을 정했다. 주요 사업은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과 산업단지 환경 조성,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 금융지원 등이다.

성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 먼지로 인한 국민 고통을 해결하고 선제적으로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10일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늘푸른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87호' 오픈식을 실시했다.

##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실현

### 전북은행, 완주군 삼례읍에 '희망의 공부방 제87호'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0일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늘푸른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87호' 오픈식을 실시했다. 이날 오픈식에는 전북은행 임재원 부행장, 김용우 완주군청지점장, 완주군청 오경택 행정복지국장, 늘푸른지역아동센터 고일석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늘푸른지역아동센터는 2002년 개소 후 주변일대 초·중·고등학생 40명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문화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노후화된 공부방 환경개선에 어려움이 많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낡고 썩어진 벽지를 교체하고 색이 바랜 문에 친화

경 페인트를 칠해 밝은 분위기를 조성했고, 책상, 의자, 개인용 사물함, 블라인드 등을 새롭게 지원하여 아동들이 오랜 시간 머물며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공부방을 선물했다. 특히, 전북은행 완주군청지점(지점장 김용우)에서는 향후 정기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 아동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임재원 부행장은 "새롭게 바뀐 공부방이 지역인재 양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북은행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도 지역사회에 곳곳에 변함없는 나눔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6월 취업자 대폭 증가... 전년대비 28.1만명 ↑

지난달 취업자 수가 상당폭 증가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1800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 1000명 증가했다.

15~64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67.2%로 1년 전보다 0.2%p 올랐다. 전 연령이 고르게 오를 가운데 40대만 0.7%p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실업자는 113만7000명으로

로 전년 대비 10만3000명 늘어났다. 같은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99년 6월(148만9000) 이후 가장 높은 숫자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기 대비 0.3%p 상승했다.

채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1.9%로 1년 전보다 0.5%p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4.6%로 같은 기간 1.7%p 올랐다.

/김영태 기자

## 코레일, 광복절 맞아 기차 여행상품 '역사레일' 출시

코레일(사장 손병석)이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기차 여행상품 '역사레일(路)'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임시정부수립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코레일과 하나투어가 함께 기획한 '애국 역사 기차 투어'로 서울역, 대전역 등 전국 주요 역에서 출발해 천안역과 천안아산역에 도착한 후 대기중인 버스를 타고 독립기

념관으로 이동하는 프로그램이다. 독립기념관에선 은홍진 한국사 강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광복의 영웅들'을 주제로 특강을 펼치며 이어 기념관을 관람을 하게 된다.

상품 가격은 3인~9인원대로 이용하는 역과 열차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수익금은 독립유공자 단체에 기부된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